

한글본 『동패낙송』 이본의 종합적 연구

정보라미*

<차례>

1. 머리말
2. 이본 간의 관계
3. 이본 별 특징과 그 층위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한글본 『동패낙송』에 대한 선행 연구가 대개 개별 이본에 대한 검토로 수행되거나 여러 한글본 야담 자료들로부터 공통적인 특질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바, 3종의 한글본이 어떤 동이점을 보이는지, 서로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 세 이본 층위가 어떠한지를 온전히 밝히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본고는 한글본 『동패낙송』 세 이본의 선초 양상, 이야기의 제목, 문면을 아울러 비교함으로써 각 이본의 특징 및 이본 간의 관계와 층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3종의 이본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 본고에서 규명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글본 『동패낙송』의 세 이본들은 같은 계열의 모본에서 파생되었다. 이 한글본 모본은 현재 일실되었지만, 한문본 『동패낙송』 중 하나인 연대본과 같은 계열에 속하는 한문본을 번역한 이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그 중에서도 국민대본과 서강대본은 완전히 동일한 모본을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단국대본은 축약적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는 이본이다.

넷째, 국민대본은 축자역에 대한 지향이 가장 강한 이본으로 현전하는 한글본 『동패낙송』 가운데 한글본 모본에 가장 가까운 이본일 것으로 추정된다.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사

다섯째, 서강대본은 3종의 한글본 『동패낙송』 가운데 변이의 폭이 가장 크고 의도적인 변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이본이다.

□ 한글본 『동패낙송』, 단국대본 『동패낙송』, 국민대본 『동패낙송』, 서강대본 『동패낙송』

1. 머리말

현재 전하는 한글본 『동패낙송』 자료로는 단국대본¹⁾, 국민대본, 서강대본이 있다. 이 3종의 자료는 모두 한문본 『동패낙송』의 일부를 한글로 번역해둔 선역본(□)이다.

국민대본의 경우 『동패낙송』에서 선초(鈔)한 이야기들만 실려 있는 독립적인 책으로 존재하지만, 서강대본에는 『동패낙송』에서 선초한 이야기들과 다른 한글본 야담 자료 『기문총화』 및 한글본 필기 자료인 『송와잡설』에서 선초한 이야기들이 함께 실려 있고, 단국대본에는 『동패낙송』에서 선초한 이야기들과 「육신전」, 「원 몽유록」이 함께 실려 있다.

이 세 자료들에 대한 고찰은 이미 각기 이루어진 바 있다. 한글본 『동패낙송』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개별 이본을 학계에 소개하고, 그 원천이 된 문헌을 탐색하거나, 선초(鈔) 및 한글 번역 양상을 검토하며 이루어졌다.²⁾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한글본 『동패낙송』의 각 이본이 갖는 특징

1) 이 자료는 본래 나손 김동욱 교수가 소장했던 책으로 이른 바 ‘나손본’으로 알려진 것이다. 이 책은 기증되어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율곡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바, 본고에서는 현재의 소장처를 기준으로 이를 ‘단국대본’으로 명명한다. 이 자료는 『나손본 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 48권의 407~474쪽에 「육신전」, 「원 몽유록」과 함께 영인되어 있는데, 『동패낙송』에 해당되는 내용은 458~474쪽에 실려 있다. 김동욱 편, 『나손본 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 48, 보경문화사, 1991, 458~474쪽.

2) 정명기, 「『동패낙송』 연구 (2)-국문본 『동패낙송』에 나타난 번역양상-」, 『연민학지』

들이 파악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적 검토는 대개 한글본 『동패낙송』의 한 이본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에³⁾ 해당 이본이 다른 한글본 『동패낙송』의 이본과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 또 어떤 동이점을 보이는지를 온전히 밝히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줄고를 통해 한글본 야담본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세 이본이 아울러 고찰되기도 했다.⁴⁾ 다만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이 세 이본을 포함하는 여러 한글본 야담 자료들로부터 공통적인 특질을 포착해 내고, 한글본 야담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는 데 있었다. 이 때문에 줄고에서는 이 세 자료들이 한글본 『동패낙송』의 이본으로서 다른 이본과 어떤 면에서 같고 다른지, 이본들 간의 관계 및 층위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지는 못했다.

이에 본고는 한글본 『동패낙송』 세 이본의 선초 양상과 이야기의 제목, 실제 문면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그 동이점을 살핍으로써 세 이본의 특징 및 이본 간의 관계와 층위를 밝히고자 한다.

5, 연민학회, 1997, 355~378쪽; 정명기, 「서강대본 『단편야담집』()의 원천과 그 의의에 대한 소고」, 『동남어문논집』 19, 동남어문학회, 2005, 379~424쪽; 백승호, 「국민대학교 소장 한글본 『동패낙송』 연구」, 『국어국문학』 16, 국문학회, 2007, 215~236쪽; 남궁윤, 「『천예록』과 『동패낙송』의 국문번역본 고찰」, 『동악어문학회』 57, 동악어문학회, 2011, 83~114쪽; 정보라미, 「서강대학교 소장 한글본 『동패낙송』의 선록 및 한글 번역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6, 291~325쪽.

3) 남궁윤의 논문은 단국대본 『동패낙송』과 국민대본 『동패낙송』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예외이다. 다만 이 논문은 한글본 『동패낙송』과 관련해 애초부터 그 초점이 단국대본과 국민대본이 한글본으로서 갖는 공통적 특질을 파악하는 데 있었거니와, 국민대본과 한문본만을 대상으로 문면의 대조가 이루어졌기에 한글본 『동패낙송』의 각 이본별 특징이나 이본 간의 관계 및 층위가 확인되지는 못했다. 남궁윤, 위의 논문 83~114쪽 참조.

4) 정보라미, 「한글본 야담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1~250쪽.

연구 대상이 3종의 한글본 『동패낙송』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본고는 한글본 『동패낙송』의 각 이본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본 간의 관계 및 층위를 총체적으로 살피고자 하는바, 한글본 『동패낙송』 이본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표방한다. 이를 통해 본고가 한글본 『동패낙송』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보완하고, 한글본 『동패낙송』의 이본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이본 간의 관계

이 세 이본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글본 『동패낙송』의 선초 양상을 일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

1	구 장통신손희보()	1화	-	10화
2	훈궁환이몽시조()	2화	-	-
3	고통신이인뉴서()	3화	2화	8화
4	엄한 명기도석()	-	1화	-
5	괴장가췌셔졸현(媾)	-	3화	-
6	지이동음관괴우()	-	4화	9화
7	사약승의사덕덕()	-	5화	-
8	제선고효 견위()	-	6화	-
9	차일념상괘괘단()	-	7화	7화
10	의 님명기슈홍()	-	8화	-
11	순녕케이실간격회치(几)	-	-	1화
12	치빈손혜부면부죄(飧)	-	-	2화
13	북 선효보용구()	-	-	3화

5) 이 표는 정보라미(2021), 앞의 논문, 32쪽의 <표 11 한글본 『동패낙송』의 선초 양상>에 수정을 가한 것이다.

14	하이자업구지복투부(嚇)	-	-	4화
15	토조선투처곤부()	-	-	5화
16	가관양노겨표부()	-	-	6화
17	(“두 선 ”)	-	-	11화

위의 표는 세 이본에 실린 이야기들의 출입을 보여준다. 세 이본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고통신이인뉴셔> 1편뿐이지만, 단국대본과 서강대본 2종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이야기로 <구 장통신손희보> 1편이 있고, 서강대본과 국민대본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이야기로 <차일념상좌괘단>, <지이동음관귀우> 2편이 있다.

이처럼 2종 이상의 이본에 공통적으로 실려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 제목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세 이본에 모두 실려 있는 유일한 이야기의 ‘고통신이인뉴셔’라는 제목이 모두 동일하다. 또 단국대본과 서강대본에 공통적으로 실려 있는 이야기의 제목 또한 ‘구 장통신손희보’로 같다. 서강대본과 국민대본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이야기는 2편인데 그 중 한 편은 ‘지이동음관귀우’로 제목이 동일하고, 다른 한 편은 서강대본에 ‘차일념상좌괘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국민대본에 ‘차일념상좌괘단’으로 쓰여 있는바, ‘괘’가 국민대본에 ‘폐’로 오기되어 있는 것 외에는 똑같다.

3종의 한글본 『동패낙송』 이본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이러한 이야기의 제목들은 한문본에 쓰여 있는 이야기 제목의 독음()을 한글로 옮겨 적어둔 것처럼 보인다.⁶⁾ 이는 어느 한문본에 쓰인 이야기의 제목을 그대로 한글로 옮겨 적은 결과, 한글본 『동패낙송』의 세 이본들이 같은 이야기의 제목을 공유하게 된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세 이본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거나 같은 모본(), 혹은

6) 제목이 적혀 있지 않은 서강대본 『동패낙송』의 제11화를 제외한 모든 이야기에 이런 식의 제목이 붙어 있다.

같은 계열의 모본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⁷⁾ 그런데 그 선초 양상을 살펴보면 이 세 이본은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지 않다. 이 세 이본에는 공통적으로 수록된 이야기들도 있지만, 서로 중복되지 않고 어느 한 쪽에만 실려 있는 이야기들이 여럿 존재한다. 이를 통해 이 세 이본은 어느 다른 한글본과 직접 영향을 주고받은 바 없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⁸⁾ 그렇다면 이 세 『동패낙송』의 이본들이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이처럼 공통점을 보이는 것은 동일한 모본 혹은 같은 계열의 모본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현존하는 한문본 『동패낙송』 이본들에서는 한글본 『동패낙송』의 이본들에 보이는 이야기들의 제목이 확인되지 않는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은 바 없는 한글본 『동패낙송』의 세 이본이 현존하는 한문본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동일한 제목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이 세 이본이 동일한 모본 혹은 동일한 계열의 모본으로부터 파생되었는데, 현재 그 모본은 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존하는 한문본 『동패낙송』의 이본들을 검토한 결과, 한글본 『동패낙송』 3종의 이본에 실린 이야기 총 17편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 이본은 연대본 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먼저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⁹⁾

7) 선행 연구에서도 단국대본 『동패낙송』과 서강대본 『동패낙송』의 번역 양상을 검토한 결과, 두 이본이 “같은 원본 아래 파생되어 나왔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명기(2005), 앞의 논문, 6~10쪽 참조.

8) 단국대본의 제2화는 국민대본과 서강대본에는 없고 단국대본에만 실려 있으므로 다른 두 이본으로부터 영향 받은 바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민대본의 제1, 3, 5, 6, 8화는 단국대본과 서강대본에는 없고 국민대본에만 실려 있으므로 다른 두 이본으로부터 영향 받은 바 없음을 추정할 수 있다. 서강대본의 제1~6, 11화는 단국대본과 국민대본에는 없고 서강대본에만 실려 있으므로 다른 두 이본으로부터 영향 받은 바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9) 이 표는 정보라미(2021), 앞의 논문, 34쪽의 <표 22 한글본 『동패낙송』과 한문본 『동패낙송』의 선초 양상 비교>에 수정을 가한 것이다.

		단국대 본	국민대 본	서강대 본	연대본	이대본 권지이	임형택본 권지이	동양 문고본	경상대 본	천리대 본
1	구 장등신손확보 ()	1화	-	10화	28화	-	-	22화	22화	21화
2	훈궁환이몽시조 ()	2화	-	-	50화	10화	10화	-	-	39화
3	고통신이인뉴서 ()	3화	2화	8화	15화	-	-	-	-	10화
4	엄한 명기도석 ()	-	1화	-	8화	-	-	-	-	7화
5	괴장가쾌셔졸현 (媼)	-	3화	-	58화	18화	18화	46화	46화	47화
6	지이동음관괴우 ()	-	4화	9화	5화	-	-	7화	7화	4화
7	사약승의사덕덕 ()	-	5화	-	37화	-	-	14화	14화	26화
8	제선고효 견위 ()	-	6화	-	60화	20화	20화	47화	47화	49화
9	차일념상좌패단 ()	-	7화	7화	24화	-	-	-	-	18화
10	의 님명기슈홍 ()	-	8화	-	33화	-	-	18화	18화	-
11	순녕케이실간적회치 (几)	-	-	1화	27화	-	-	23화	23화	20화
12	치빈손혜부면부죄 (飧)	-	-	2화	10화	-	-	8화	8화	-
13	복 선효보용구 ()	-	-	3화	1화	-	-	4화	4화	1화
14	하이자엄구지복투부 (嚇)	-	-	4화	11화	-	-	9화	9화	8화
15	토조선투쳐곤부 ()	-	-	5화	65화	25화	25화	-	-	-
16	가관양노저표부 ()	-	-	6화	35화	-	-	16화	16화	24화
17	(“두 선 ”)	-	-	11화	44화	4화	4화	36화	36화	33화

앞의 표를 통해 연대본은 한글본 『동패낙송』 세 이본에 실린 17편의 이야기들이 전부 수록되어 있는 유일한 한문본 이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세 한글본 『동패낙송』이 같은 모본, 혹은 같은 계열의 모본에서 파생되었으리라는 앞의 추정을 고려할 때, 한글본 『동패낙송』의 세 이본에 실린 17편의 이야기들이 전부 수록되어 있는 유일한 한문본 이본인 연대본은 현재 전하는 한문본들 중에서 한글본 『동패낙송』들의 모본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본이 된다.

그런데 앞서 밝힌 바 한글본 『동패낙송』의 세 이본에 실린 이야기들의 제목이 연대본의 이야기들에 붙은 제목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아울러 참조하면, 연대본이 3종의 한글본 『동패낙송』들의 모본과 직접적인 영향 관계에 놓이기는 어렵다. 이에 3종의 한글본 『동패낙송』 이본들의 모본은 연대본과 같은 계열에 속하는, 지금은 일실된 어느 한문본을 번역한 한글본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이상에서 선조 양상 및 이야기의 제목을 일별하며 가늠해본 한글본 『동패낙송』 세 이본의 관계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일실된 한문본 A	연대본		
	일실된 한문본 B	일실된 한글본 A	단국대본
			국민대본
			서강대본

3. 이본 별 특징과 그 층위

여기서는 문면의 비교를 통해 한글본 『동패낙송』 이본 별 특징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이본들 간의 관계를 계속해서 따져보는 한편, 이본들의 층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한글본 『동패낙송』의 세 이본에 실린 이야기들 가운데 그 문면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한글본 『동패낙송』의 세 이본에 모두 실려 있는 <고통신이인뉴서>, 단국대본과 서강대본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구 장통신손획보>, 서강대본과 국민대본에 공통적으로 실려 있는 <차일념 상좌패단>, <지이동음관괴우>로 총4편이다.

먼저 한글본 『동패낙송』의 세 이본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유일한 이야기인 <고통신이인뉴서>의 번역 문면을 비교하여 세 이본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통신이인뉴서>에 보이는 한글 번역 상의 차이를 각 이본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당혼 여시 간난 여 혼 인 지 길히 업 지라	당혼 여시 가난 여 디 길이 업 디라	당혼 앓시 간난 여 디 길히 업 지라
		삼문 <u>알</u>	삼문이 <u>오</u>	문이 <u>로</u>
		<u>일</u> 홀 막지 못 리라	내 <u>길</u> 홀 막디 못 리라	<u>길</u> 을 막지 못 리라
		길 난지 <u>누일</u> 만의	길홀 난 디 <u>여러</u> 날의	길홀 난 지 <u>여러</u> 날의
		야호로 민망 더니	야호로 민망 <u>여</u> 더니	야호로 민망 <u>여</u> 더니
		듀용 <u>알</u>	주용이 <u>오</u>	주용이 <u>로</u>
		이거시 노부의 랑 이로다	이거시 노부의 <u>서</u> 랑 이로다	이거시 노부의 <u>서로</u> 랑 지로라
		불을 혀고 <u>글</u> 밭을	불을 혀고 <u>글</u> 밭	불을 혀고 <u>문</u> 이를 의논
		인 여 밤이 <u>김</u> 혀시니	인 야 <u>오</u> 밤이 <u>임</u> 의 김혀시니	인 여 <u>로</u> 밤이 <u>임</u> 의 김혀시니
		야호로 혼구 <u>성비</u> 며	야호로 혼구 <u>성히</u> <u>초와</u>	야호로 혼구를 <u>성</u> 이 <u>초와</u>
		꿈이 에 놀나 비로소 노용 이 신인 줄 미덧더니 <u>밋 오</u> 신으로 더브러 상왕을 회복 기	<u>삼문</u> 이 이에 <u>크게</u> 놀라 비 로소 노용이 신인인 줄 미 덧더니 <u>밋 오</u> 신으로 더브러 상왕을 회복 기	<u>삼문</u> 이 이에 <u>크게</u> 놀라 비 로소 노용이 신인인 줄 <u>밋</u> 엇더니 <u>밋 오</u> 신으로 더부러 상왕을 회복 기를

	다만 보니 그 노인의 옛 터	다만 보니 노인 넷 터	다만 보니 노인 던 옛 터
	만고유명 고 천추의 혈식 거시니 날 려 무려 무엇 리오	만고의 유명 고 천추의 혈 식 거시니 일의 가부야 날 려 무려 르엇 리오	만고의 유명 고 천추의 혈 식 거시니 일의 가부야 날 려 무려 무엇 리요

문면을 비교한 결과, <고통신이인뉴셔>는 한문본의 내용이 거의 직역되어 있었고 세 이본 간의 차이는 자구의 출입 정도에 그칠 뿐이었다. 이러한 출입이 대개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세 이본의 특징과 관계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한다.

세 이본에 실린 <고통신이인뉴셔>의 문면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이야기들의 제목을 근거로 추론했던 대로 세 이본은 같은 계열의 모본을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⑦과 ⑪은 한글본이 한문본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표현을 완전히 다르게 바꾸거나(⑦) 한문본에는 없는 내용을 첨가한 예인데(⑪) 세 한글본의 문면은 부사의 첨가 여부(⑦서로/서, ⑪크게), 주어의 표현(⑪공이/삼문이), 오자(⑪오신/우신)를 제외하면 거의 동일하다. 이러한 한글본 동태낙송 이본 간의 공통점은 세 이본이 같은 모본, 혹은 적어도 같은 계열의 모본에서 파생되었음을 재확인시켜 준다.

둘째, 그 중에서도 국민대본과 서강대본은 큰 친연성을 보여주고, 단국대본은 이 두 이본과 다소 구별되는 면모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⑩, ⑪, ⑬). 단국대본에 단어가 첨가되거나(① 오자(③)가 보이는 경우, 국민대본과 서강대본은 단국대본과는 다른 문면을 공유하고 있다. 또, 단국대본은 한자어 표현이 더 많고(②, ④, ⑥, ⑩) 더 축약적이라는 점에서도(⑤, ⑦, ⑨, ⑪, ⑬) 국민대본 및 서강대본과 구별된다.

한문본의 “ ”을 국민대본과 서강대본에서는 “ 오 / 로 ”로 번역해 둔 데 비해, 단국대본에서는 이를 “알”로 옮겨 두었고(②, ⑥), “ ”을 “여러 날의”로 번역한 국민대본 및 서강대본과 달리, 단국대본은 이를 “누일만

의”로 번역해 두었다(④). 또 “ ”를 단국대본에서는 그대로 “성비 며”로 적어 두었는데, 국민대본과 서강대본에는 이를 “성히 초와/성이 초아”로 번역해 둔바(⑩), 국민대본 및 서강대본과 달리 단국대본에서는 한자어 표현이 훨씬 빈번하게 쓰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 단국대본에서는 부사의 생략(⑦, ⑪), 표현 및 내용의 축약(⑤, ⑨, ⑬)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바, 국민대본 및 서강대본과는 구별되는 단국대본의 축약적 특징이 확인된다.

셋째, 단국대본과 국민대본에 비해 서강대본의 번역은 다소 설명적인 태도를 보이는 측면이 있다(⑧, ⑫). 한문본의 “ ”가 단국대본에는 “글발을 ”로, 국민대본에는 “글 말 ”로 번역되어 있는데, 서강대본에는 이 부분이 “문이를 의논 ”로 되어 있다(⑧). 또, 한문본의 “ ”는 단국대본에 “그 노인의 옛 터 ”로, 국민대본에 “노인 넷 터 ”로 되어 있는데, 서강대본에는 “노인 던 옛 터 ”로 되어 있다(⑫). 이는 서강대본의 필사자가 모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모본의 문면을 그대로 옮기면 문의()를 잘 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독자의 이해를 위해 해당 부분을 부연하며 내용을 풀어 썼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고통신이인뉴셔>의 문면을 비교 검토하며 세 이본의 관계와 특징을 가늠해볼 수 있었다. 세 이본의 문면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이야기는 <고통신이인뉴셔> 뿐이기에 단국대본과 서강대본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구 장통신손획보>, 서강대본과 국민대본에 공통적으로 실려 있는 <지이동음관귀우>, <차일념상좌패단>의 문면을 계속해서 비교하며 앞서 확인한 사실들을 재검토하면서 논의를 이어 나가고자 한다.

먼저 단국대본과 서강대본의 <구 장통신손획보>를 비교한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히

	금헌 박공의	박공 년이
	뉴락 여	뉴낙 야
	가을의 만 마을 사 을 모화	을의 을 람을 모화
	이리로 오를 진덕히 보았더니	놀이 이리로 오를 진덕히 보았더니
	박 이 여오 그 말은 뇨료히 각 나	박 이 매 그 말은 료료 나
	넙안 미 가 다	입안 물 청 미 가 다
	전의 듯지 못흔 말이로다	전의 듯지 못 던 고이흔 말이로다
	곡식 쉼	곡식 쉼쑤
	체역 고	년의 체역 고

단국대본과 서강대본에 실린 <구 장통신손획보>의 문면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①로 볼 때 단국대본과 서강대본은 완전히 동일한 모본이 아니라, 같은 계열의 모본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연대본에는 “
”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단국대본에는 “ 금헌 박공”으로, 서강대본에는 “박공 년”으로 번역되어 있다.

한글본 『동패낙송』의 한문본 모본이 연대본과 같은 계열에 속했을 것이라는 추론, 한글본 이본들이 직역 위주로 번역되었다는 사실, 단국대본과 서강대본에 실린 인물 정보를 합치면 연대본에 실려 있는 인물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본래 한글본 『동패낙송』의 모본이 된 한문본에는 연대본과 마찬가지로 성(“ ”) 호(“ ”) 이름(“ ”)의 세 가지 정보가 모두 쓰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정보가 적힌 동일한 한글본 모본에서 단국대본은 이름을 탈락시키는 대신 호와 성을 옮겨 적고, 서강대본은 호를 탈락시키는 대신 성과 이름을 옮겨 적어 두었을 가능성과 단국대본은 이 세

가지 정보 가운데 이름을 탈락시키는 대신 호와 성을 옮겨 적어둔 한글본 모본을 필사한 것이고, 서강대본은 호를 탈락시키는 대신 성과 이름을 옮겨 적어둔 또 다른 한글본 모본을 필사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의 경우, 단국대본과 서강대본의 모본이 동일할 것이다.

둘째, 단국대본의 탈자가 서강대본의 문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⑧) 서강대본의 오자가 단국대본의 문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②) 두 이본 간에는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된다.

셋째, 서강대본에서 자구가 축약되는 경우보다(③, ⑤) 단국대본에서 자구가 축약되는 경우가 훨씬 빈번하게 보인다(④, ⑥, ⑦, ⑨). 앞서 세 이본의 문면 비교를 통해 살펴본 단국대본의 축약적 성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민대본과 서강대본에 공통적으로 실려 있는 <지이동음관귀우>, <차일님상좌괘단>의 문면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먼저 <지이동음관귀우>의 문면을 비교한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음세평
		음세령
ㅍ	곶 <u>걸</u> 령이 당도령이라	곶 <u>장</u> 도령이라
	<u>예</u> 서 십여 리 되 나라	십여 니 되 나라
	진애가 업 디라	<u>일</u> 절 진 업디라
	음관이 오히려 모 거	음관이 오히려 <u>서</u> 히 모로거
ㅍ	존 의서 밥 비러먹던 당도령이로라	존 의서 밥 벌어먹던 장도령이로라
	동대문 <u>괴</u> 서	동 문 <u>뱃</u> 괴서
	<u>오</u> 히려 듯고	<u>오</u> 히 듯고
	팔년의 <u>쥬</u> 류 여	팔년의 <u>쥬</u> 류 여

국민대본과 서강대본에 실린 <지이동음관귀우>의 문면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대본과 서강대본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오자로 볼 때, 앞서 세 이본의 문면 비교를 통해 살폈던 국민대본과 서강대본의 친연성을 다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①, ⑨). ①을 살펴보면 연대본의 “ ”이 국민대본에 “음세평”으로, 서강대본에 “유세령”으로 조금씩 각기 틀리게 쓰여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국민대본과 서강대본의 한글본 모본에 쓰인 자형이 정확하지 않았던 데서 비롯된 오기로 보인다.

한편 ⑨에서는 국민대본과 서강대본에 연대본의 “ ”이 “팔년”으로 동일하게 오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처럼 이 두 이본은 오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친연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둘째, 국민대본은 축자역()에 더 가까운 데 비해 서강대본에서는 자구의 축약(②, ③)과 첨가(④, ⑤)가 더 빈번하게 확인되고 오기도 더 많다(⑥, ⑧).

②, ③을 보면 국민대본이 한문본의 축자역에 가까운 데 비해, 서강대본에서는 축역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의 경우 연대본의 “ 丐 ”가 국민대본에는 “긫 걸렁이 당도령이라”로 축자역되어 있는데, 서강대본에는 “丐”에 해당하는 번역 “걸렁이”가 삭제되어 “긫 장도령이라”로 축약되어 있다.

③은 연대본의 “ ”가 국민대본에는 “예서 십여 리 되 나라”로 축자역되어 있는데, 서강대본에는 “십여 니 되 나라”로 되어 있는 바 “ ”에 해당하는 번역 “예서”가 삭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④, ⑤는 모두 서강대본에서 부사가 첨가된 예이다. ④는 서강대본의 필사자가 임의로 “일점”이라는 부사를 첨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달리 ⑤는 서강대본의 필사자가 필사 과정에서 혼동을 일으킨 결과 발생한 첨가가 아닌가 한다. 바로 앞의 문장 “ 서히 보라”의 “ 서히”를 다음 문

장인 “음관이 오히려 모로거 ”에 잘못 반복하여 써넣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⑥과 ⑧은 각기 서강대본의 오자와 탈자로 인한 오류에 해당된다.

서강대본에서는 ②, ③과 같이 축약이 이루어지거나 ④, ⑤처럼 부사가 첨가되기도 하고 ⑥, ⑧과 같이 오자 및 탈자가 발견되기도 하는 데 비해, 국민대본의 경우 내용이 축약되거나 첨가된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또, 서강대본에는 보이지 않고 국민대본에서만 단독적으로 발견되는 오류는 ⑦의 탈자에 한정된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서강대본은 국민대본에 비해 변이가 비교적 더 폭넓게 이루어진 이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국민대본이 서강대본에 비해 모본의 원형에 다소나마 더 가깝지 않을까 추정된다.

앞서 살핀 바 단국대본의 변이가 주로 축약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상기하면, 서강대본에서 발생한 변이는 단국대본에 비해서도 그 폭이 비교적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서강대본은 단국대본과 국민대본에 비해 변이가 더 폭넓게 이루어진 이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민대본과 서강대본에 실린 <차일념상좌패단>의 문면을 비교한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 이 다 피 더라	사람이 다 뭐워 고 피 더라
		창 틈으로 여어보니 첩이 제 외덜 을 리고 자거 뒤 드 여 활을 여 창 틈으로 아 죽이고	당등의 등축이 휘황 고 밧문을 닷지 아 니 옛거 암의 고이히 녀여 만이 어두운 셔 여어보니 첩이 단장을 생히 고 등계에 거너러 사람을 기 리 형 상이러니 이윅고 밧그로셔 혼 높이 드러 와 그 첩을 잇글고 방등의 드러 희환 이 낭 자거 그 높을 자서히 보니 제 외질이라. 뒤 드 여 혼 활과 두 살을 어더 창틈으로 아 죽이고

	그 집의 니 디 아니 고 왔더니	도라왔더니
	초췌 리의 와 마자 먹일	중노의 와 마자 먹일
	길 셔 혼 중을 만나니	길 셔 <u>저문 후 뷔 절의 드러 밤을 지</u> <u>고 라</u> 혼 중을 만나니
	도흔 사 이 중이 되엿도다	조흔 램이 중이 <u>도</u> 엿도
	<u>신</u> 치상산 <u>들의</u> 이셔	<u>스승이</u> 치상산 <u>가온</u> 잇셔
	올 예 <u>두</u> 사 올 죽엿도다	올 예 두 사람을 죽엿도다
	신술을 호고져 던	실술을 호고져 던
	일중 게 고	일중 게 고
	상재 되리로다	상재 되리로다
	다만 스 님을 그 친 <u>최시</u> 무어시 니잇고	다만 스승님을 그르친 <u>거시</u> 무어시니잇 고
	일노조차 몇 만의	일노조 <u>어느</u> 예 몇 만의
	산등의 메여 리니	<u>심산의</u> 머여 리니
	<u>별</u> 려 닐러 오	내 일너 로
	<u>전일</u> 장도 <u>옥인</u> 으로	평일 장 도 <u>옥인</u> 으로써
	귀룡을 며 <u>혹</u> 년화보전도	귀룡을 며 <u>혹</u> 년화보련도 타며
	상승 기 가히 <u>기</u> 알 리라.	상승 기를 <u>기</u> 를 히 <u>기</u> 약 리라

국민대본과 서강대본에 수록된 〈차일념상좌패단〉의 문면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대본과 서강대본은 오류를 공유하고 있음이 재확인된다. ⑩은 두 이본이 동일하게 “유언()”을 “옥인”으로 오기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본래 한글로 쓰인 모본에 이 부분이 오기되어 있었는데, 국민대본과 서강대본에서 이를 그대로 옮겨 썼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이동음관귀우〉의 비교를 통해서도 두 이본에서 동일한 오자가 확인되었으므로, 국민대본과 서강대본이 동일한 모본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은 꽤 높아 보인다.

둘째, 국민대본의 변이는 의도치 않은 오류에서 비롯되는 오타자가 많고 (④, ⑩, ⑪, ⑫, ⑬, ⑭, ⑮), 의도적인 변이는 기껏해야 부사의 첨가 정도인

데 비해(⑧), 서강대본에서는 오자(⑥, ⑨) 뿐 아니라, 부사구의 첨가(⑬),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서술의 축약(③, ⑮), 구체적인 지명의 익명화(④), 표현의 대체(⑦, ⑭) 등이 두루 확인된다.

게다가 서강대본에는 인물의 내면심리 및 상황에 대한 서술이 부연되어 있기도 한바(②, ⑤), 특히 ②의 경우 서강대본의 필사자가 의도적으로 모본의 문면을 개작하고자 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국민대본은 한문본의 문면을 거의 그대로 축자역함으로써 첩과 외질의 간통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는데 비해, 서강대본에는 구체적 배경과 분위기(“당등의 등축이 휘황 고 빛문을 닳지 아니 엇거 ”), 간통 장면을 엿보는 남궁두의 내면심리(“ 암의 고이히 녀여”), 첩과 외질의 행동(“첩이 단장을 성히 고 등계에 거너리 사람을 기 리 형상이러니 이윅고 밧그로서 혼 놈이 드러와 그 첩을 잇글고 방등의 드러 희학이 낭 자거 ”) 등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즉, 이 짙막한 서술은 서강대본에서 생생한 장면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이에 서강대본은 변이의 폭이 큰 이본일 뿐 아니라, 의도적인 변이도 가장 많이 이루어진 이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서강대본의 특징은 서강대본에만 쓰인 쌍행()의 세주()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¹⁰⁾

서강대본의 필사자는 나름의 판단에 따라 모본의 내용을 부연하거나 축약하는가 하면, 표현을 바꾸고 세주를 첨가하는 등 다각도에서 텍스트를 의도적으로 변이시키며 필사했던 것이다. 이로 볼 때, 서강대본의 필사자가 한글본 『동패낙송』의 필사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상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추론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강대본과 국민대본이 동일한 한글본 모본을 공유했던 것으로 보이는 데 비해, 단국대본은 같은 계열의 다른 한글본에서 파생된 이

10) 제4화 <하이자엄구지복투부>의 “녕윤”에 “ 의 아 일롯 밧”, 제6화 <가관양노저 표부>의 “응 ”에 “ 산영 이라”, 제10화 <구 장통신순희보>의 “넙뵤”에 “산 사 ”이라는 쌍행의 세주가 각기 쓰여 있다.

본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 단국대본은 축약적 성격을 가장 크게 보이는 이본이고, 서강대본은 변이의 폭이 가장 크고 의도적인 변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이본이며, 국민대본은 축약역에 가장 가까운바 모본과 제일 가까운 이본이다.

앞서 선초 양상과 이야기의 제목을 검토하여 세 이본 간의 관계를 아래의 ①과 같이 가늠한 바 있는데, 문면을 비교한 결과 ②와 같은 가능성을 아울러 제시한다.

일실된 한문본 A	연대본			
	일실된 한문본 B	일실된 한글본 A	단국대본	
			국민대본	
			서강대본	

일실된 한문본 A	연대본			
	일실된 한문본 B	일실된 한글본 A	단국대본	
		일실된 한글본 B	국민대본	
			서강대본	

4. 맺음말

본고는 한글본 『동패낙송』에 대한 선행 연구가 대개 개별 이본에 대한 검토로 수행되거나 여러 한글본 야담 자료들로부터 공통적인 특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바, 3종의 자료가 한글본 『동패낙송』의 이본으로서 어떤 동이점을 지니고, 서로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 세 이본 층위가 어떠한지를 미처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본고는 한글본 『동패낙송』 세 이본을 면밀히 비교함으로써 각 이본

별 특징을 확인하고, 그 관계와 층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 3종의 이본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본고에서 규명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글본 『동패낙송』의 세 이본들은 같은 계열의 모본에서 파생되었다. 이 한글본 모본은 현재 일실되었지만, 한문본 『동패낙송』 중 하나인 연대본과 같은 계열에 속하는 한문본을 번역한 이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그 중에서도 국민대본과 서강대본은 완전히 동일한 모본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단국대본은 축약적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는 이본이다.

넷째, 국민대본은 축자역에 대한 지향이 가장 강한 이본으로 현전하는 한글본 『동패낙송』 가운데 한글본 모본에 가장 가까운 이본이 아닐까 추정된다.

다섯째, 서강대본은 3종의 한글본 『동패낙송』 가운데 변이의 폭이 가장 크고 의도적인 변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이본이다.

3종의 한글본 『동패낙송』 이본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본고가 선행 연구들에서 간과된 부분들을 보완하고, 한글본 『동패낙송』의 이본들의 특징 관계 층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자료

한문본 『』(연세대학교 소장본)

한글본 『동패낙송』(국민대학교 소장본)

(단국대학교 소장본)

(서강대학교 소장본)

김동욱 편, 『나손본 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 48, 보경문화사, 1991, 1~722쪽.

김동욱 편역, 『교역 언해본 동패락송』, 보고서, 2013, 1~324쪽.

2. 논저

남궁윤, 「『천예록』과 『동패낙송』의 국문번역본 고찰」, 『동악어문학회』 57, 동악어문학회, 2011, 83~114쪽.

백승호, 「국민대학교 소장 한글본 『동패낙송』 연구」, 『국어국문학』 16, 국문학회, 2007, 215~236쪽.

정명기, 「『동패낙송』 연구 (2)-국문본 『동패낙송』에 나타난 번역양상-」, 『연민학지』 5, 연민학회, 1997, 355~378쪽.

정명기, 「서강대본 『단편야담집』()의 원천과 그 의의에 대한 소고」, 『동남어문논집』 19, 동남어문학회, 2005, 379~424쪽.

정보라미, 「서강대학교 소장 한글본 『동패낙송』의 선록 및 한글 번역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6, 291~325쪽.

정보라미, 「한글본 야담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1~250쪽.

ABSTRACT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Korean Versions of the *Dongpae Naksong*

Chung, Borami

This study aimed to comprehensively assess the different points, relationships, and layers among the three Korean versions of *Dongpae Nakso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the copies of the three Korean versions of *Dongpae Naksong* were each derived from the original version of the same series.

Second, the Korean versions of *Dongpae Naksong* collected by Kookmin university and Seogang university appear to have been derived from the same original text.

Third, the Korean version of *Dongpae Naksong* collected by Dankook university is the most abbreviated one.

Fourth, the Korean version of *Dongpae Naksong* collected by Kookmin university is the closest to the literal translation.

Fifth, the Korean version of *Dongpae Naksong* collected by Seogang university displays the largest and most deliberate variation.

Key Words

Korean versions of *Dongpae Naksong*, Korean version of *Dongpae Naksong* collected by Dankook university, Korean version of *Dongpae Naksong* collected by Kookmin university, Korean version of *Dongpae Naksong* collected by Seogang university

논문투고일 : 2021.10.25.

심사완료일 : 2021.11.07.

게재확정일 : 2021.11.09.